

**BUY**

목표주가(12M) 90,000원
현재주가(11.14) 69,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2,433.25
52주 최고/최저(원)	74,700/61,500
시가총액(십억원)	13,960.0
시가총액비중(%)	0.72
발행주식수(천주)	200,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5
외국인지분율(%)	16.95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물산 외 1인	45.30
신세계 외 1인	8.07

Consensus Data

	2023	2024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2,358	2,647
순이익(십억원)	1,968	2,188
EPS(원)	9,611	10,628
BPS(원)	223,651	231,522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보험손익	(1,995.8)	141.5	(702.4)	(6,750.9)
투자손익	7,407.9	6,514.5	7,092.6	7,010.2
영업이익	(513.0)	(196.6)	(9.0)	(311.4)
당기순이익	833.8	928.8	851.9	616.7
지배순이익	977.4	1,265.8	1,469.4	1,583.3
증감률	(41)	30	16	8
DPS	2,650	2,500	3,000	3,000
P/E	12.69	13.69	9.15	10.74
P/B	0.37	0.37	0.29	0.57
ROA	0.36	0.42	0.47	0.54
ROE	3.28	3.51	4.02	6.11
배당수익률	3.6	3.4	3.9	4.2



Analyst 안영준 yjah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11월 15일 | 기업분석

삼성생명(032830)**3Q23 Re: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CSM 조정 규모 컸지만 연간 실적 및 배당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90,000원을 유지한다. 3분기 실적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9,380억원에 달하는 CSM 조정이 있었고 당기 CSM 상각액도 전분기대비 감소했으나, 안정적인 예상차와 투자이익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세전이익은 1조 9,437억원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연간 가이드라인인 1.8조원을 이미 초과한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배당성향 35%~45% 감안 시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연간 DPS는 3,500원(vs. 2022년 3,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순이익은 4,756억원 (+78% (QoQ)) 기록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4,756억원(+78% (QoQ))을 기록했는데,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각각 전분기대비 -11%/적지 변동한 3,878억원/-555억원이었다. APE(연납화보험료)는 18% (QoQ) 감소했는데, 보장성/저축성이 각각 -21%/+2% (QoQ) 변동했다. APE 감소에도 CSM 배수가 높은 건강보험의 판매비중이 40%로 10%p (QoQ) 상승하면서 신계약 CSM은 1% (QoQ) 감소한 9,564억원을 기록했다. 견조한 신계약 CSM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CSM은 2% (QoQ) 감소한 11조 7,089억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 중 가정 변경 등으로 인해 CSM 조정액이 9,382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가정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의 CSM이 조정된 이유는 실손보험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5,400억원의 CSM 조정이 있었던 것과 특정 계약군에서 해약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자이익률은 0.3%p (QoQ) 상승한 2.8%를 기록했는데(변액, 퇴직, 헷지손익 등 제외),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자산 평가손실을 소폭 반영했지만 상반기 저이원 채권 교체매매에 따라 보유이원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안정적인 자본력에 향후 이익 및 배당 증가의 가시성도 높음

3분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큰 폭의 CSM 조정이 있었으나, IFRS17 전환 시 1년 소급을 적용하여 타사 대비 기초 CSM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올해 견조한 신계약 CSM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보험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 채권 교체매매를 통해 보유이원을 제고한 것이 이차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에도 K-ICS 비율은 215%~2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과거 판매했던 금융보험의 해지액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성 위험도 완화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이익 증가에 기반하여 향후 꾸준한 DPS 증가와 이를 통한 밸류에이션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삼성생명의 실적

(십억원)

	1Q23	2Q23	3Q23	QoQ
보험이익	383.7	434.6	387.8	-11%
CSM상각	382.0	320.8	299.0	-7%
RA상각	155.0	148.2	84.2	-43%
예실차	(83.0)	(1.0)	25.7	흑전
손해액	(20.0)	35.0	35.0	+0%
사업비	(63.0)	(36.0)	(9.0)	적지
기타	(70.3)	(33.4)	(21.1)	적지
주요지표				
APE	764.7	922.3	758.8	-18%
보장성	510.8	778.4	611.3	-21%
저축성	253.9	143.9	147.5	2%
신계약 CSM	846.0	969.9	956.4	-1%
보장성	737.7	910.8	879.2	-3%
연금	108.3	59.1	77.2	31%
투자이익	299.2	(365.0)	(55.5)	적지
투자서비스손익	3,302.4	1,492.0	1,049.0	-30%
(투자이익률)	3.9%	2.5%	2.8%	+0.3%p
보험금융손익	(3,003.2)	(1,857.0)	(1,104.5)	적지
영업이익	683.0	70.0	332.3	+375%
영업외손익	259.8	(3.0)	5.0	흑전
자회사 지분법 손익	253.0	0.0	0.0	+0%
연결조정	13.7	291.0	292.1	+0%
세전이익	956.4	358.0	629.3	75.8%
당기순이익	739.1	299.8	506.8	+90%
지배주주순이익	706.8	267.4	475.6	+78%

주1: CSM 손실/환입 금액은 기타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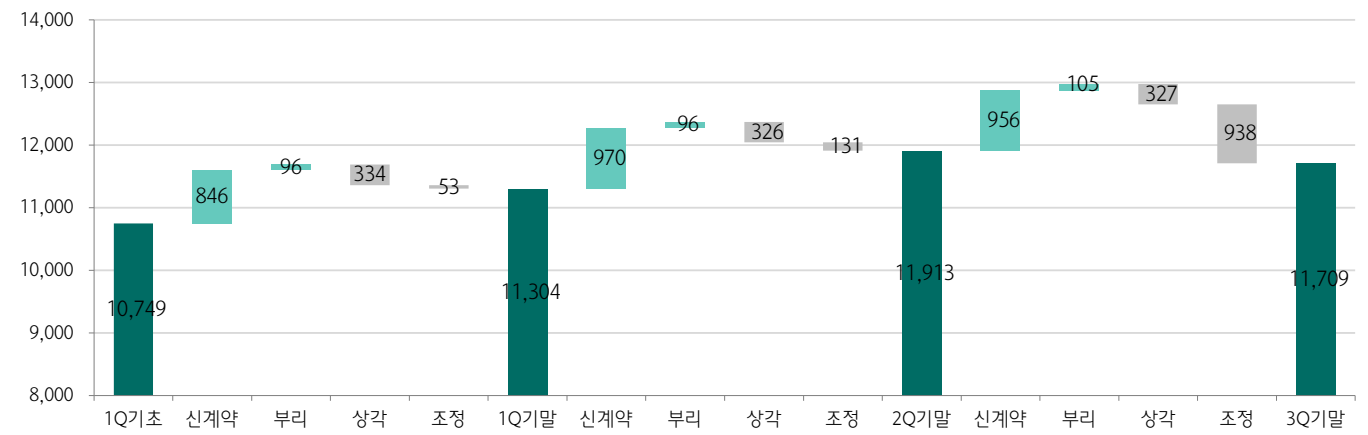
주2: 투자이익률은 변액, 퇴직, 헷지손익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수익 제외 기준

주3: 사측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된 연결/지분법 대상 주식 배당금 손익을 투자이익으로 집계

자료: 삼성생명, 하나증권

도표 2. 삼성생명의 CSM Movement

(십억원)



자료: 삼성생명, 하나증권

삼성생명 3Q23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Q) 자본 잉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A) 자본적정성 목표를 180%~220% 수준으로 소통한 바 있음. 다소 높은 수준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금리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점과 규제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220% 수준의 목표는 적절하다고 생각됨. 공동재보험과 계약재매입 등이 활성화되면 변동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자본정책이 주주환원 확대 기조로 선회될 수 있다고 생각됨. 동일한 주주환원 규모에서는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금 상향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음. 내년 CSM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섞어서 주주환원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함. 내년쯤 되면 좀 더 선명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

Q) 향후 신계약 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지?

A) 단기납 종신 이슈 이후 시장에서는 건강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음. 다만 향후 보험시장은 경기 상황과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구 중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당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포커스를 하면서 시장이 일정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 건강보험 시장이 720억원이었고, 금년 770억원, 내년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중임. 이후 3% 정도 매년 성장해서 시장 규모는 2030년 9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Q) 많은 아시아 보험사들이 노령인구 대상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

A) 202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니어케어 관련 시장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중임. 시니어케어 산업은 범국가적 이슈로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도 요구됨. 감독당국에서도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사도 이를 준비하고 있음. 당사도 시니어 고객 풀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그룹 내에 노블카운티라는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Q) 신계약 관련 볼륨은 늘었지만 CSM 배수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A) 3분기 전분기대비 건강보험의 APE가 증가하면서 CSM도 2,910억원에서 3,810억원으로 대폭 증가함. 건강보험의 CSM 배수가 1분기 26.3배, 2분기 27.4배, 3분기 26.4배로 하락했는데, 회사에서는 1배 수준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그 이유로 보고 있음. 아직까지 CSM 배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Q) CSM 조정이 9,400억원 정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지?

A) 3분기 CSM 조정 금액이 컸는데, 첫번째 이유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실손보험 CSM 산출 방식 변경으로 5,400억원 정도 있었음. 이번 실손 가이드라인 일회성 조치로 향후에는 조정 항목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임. 기본적으로 분기 중에는 가정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기 CSM 조정은 보유계약의 차이나 투자예실차, 약관대출 등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됨. 보유계약 중 미래현금흐름이 좋은 계약이 있고 좋지 않은 계약이 있는데, 현재 결산 단계에서는 계약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면이 있음. 현금흐름이 안좋은 계약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해약이 적었고, 현금흐름이 좋은 계약들은 사망이나 해약이 더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 1~2분기보다 3분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고, 4분기 조정 등을 통해 향후 적정 수준 내에서 CSM 조정이 일어나도록 관리할 계획임

Q) CSM 조정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영향이 CSM 및 RA 이익 등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A) 가이드라인은 6개가 있었음. 기본적으로 당사는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4개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적용했었음. 무/저해지 관련, 고예정이율 상품 해지율, 변액보험, CSM 상각률 변동 등에 대한 것이 있었음. 무/저해지와 고예정이율 상품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의 영향이 없었음. 변액보험은 변액종신을 PL에서 VFA로 변경하면서 20억원 정도 당기 영향이 있었음. CSM 상각률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50bp 내외로 조정된다고 말한 바 있음. 3분기에는 실손보험에 대한 산출방식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5,400억원의 CSM 조정이 있었고 이는 일회성인 요인으로 향후 조정항목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RA 환입 관련해서는 산출 방식이 다양했는데, 가이드라인은 환입을 늦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사는 19% 수준의 RA 환입이 11% 수준으로 낮아짐. 기존 변경으로 당기손익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CSM 조정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회사 가치 측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됨

Q) 저축성보험의 많은 만기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축성 만기 도래 금액이 올해 대비 감소할지 혹은 비슷한 수준일지?

A) 해지금액의 추이, 2013년 판매한 금융형 일시납 상품의 만기 도래,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해지에 대해서는 작년 3분기 월평균 0.6조원 정도의 해지가 발생했고 4분기에는 월평균 1.4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0.5조원까지 안정화됨. 3분기에도 해지금액은 월평균 0.6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임. 준비금 규모에 비례해서 이상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보장성의 해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

만기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과거 금융형 보험에 대한 일시납 비과세 한도 제한이 있었음. 2012년에는 금융형 보험 6조원을, 2013년 4.9조원을 판매함. 과거 판매한 상품들이 10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고금리 기조로 2022년 2.8조원, 2023년 3.2조원의 만기가 나감. 금년을 피크로 해서 내년 2.2조원, 2025년 1.8조원, 2026년 1.7조원으로 만기 금액들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작년 말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됐을 때에도 전속채널이나 방카를 통해 일시납을 확보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판매 증가와 연금저축에 대한 상품 확대 등 다변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로 성장성을 높일 계획임

Q) K-ICS 관련 금리 하락을 가정했을 때 민감도는?

A) 리스크량으로 잡고 있는 대량해지리스크가 회사마다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K-ICS 영향은 회사마다 다름. 3.7%의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50bp 하락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K-ICS 비율은 6~7%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현 행금리인 4%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50bp 하락은 영향이 없고, 100bp 하락하면 K-ICS 비율은 9%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Q) 내년부터 금리기간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UFR LLP 등의 변동에 따른 K-ICS 민감도는 어떻게 될 지?

A) 지난 7월 감독당국은 부채 할인을 인하를 발표함. UFR 인하폭 확대와 LLP 인하,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동이 예정됨. 이중 UFR 인하폭 확대와 최종관찰만기 확대 영향은 크지 않고, 가산금리였던 LP 인하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를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매년 들어오는 신계약 CSM이 할인을 인하 영향을 커버해서 향후에도 K-ICS 비율은 220%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가산금리의 영향이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10%p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신계약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임

Q) 향후에도 CSM 3.2조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지?

A) 올해 신계약 CSM은 3.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년 안정적으로 신계약 CSM이 우상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향후 3조원 이상의 신계약 CSM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 중임

Q) CSM 조정에서 실손 규모가 손보사보다 크지 않은데도 CSM 조정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A) 2~3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보사와 손보사의 가이드라인 영향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움. 실손은 1~4세대의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영향도가 달라짐. 각 세대별 회사의 손해율과 비차까지 고려한 합산손해율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CSM 조정 관련해서는 분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은 크게 2가지임. 첫번째는 제도 변화로, 지금까지의 제도 변화 영향은 3분기까지 다 반영함. 기시 대비 기말 보유계약 차이에 따른 CSM 조정 부분은 포트폴리오 연도별 조정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임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험손익	(1,273)	(1,996)	141	(702)	(6,751)
보험영업수익	16,341	16,436	18,027	17,970	19,260
보험료수익	16,001	16,047	17,574	17,457	18,686
재보험수익	340	389	453	513	574
보험영업비용	17,614	18,432	17,886	18,672	26,010
지급보험금	13,478	14,427	13,990	14,748	21,500
재보험비용	389	443	529	587	1,179
사업비	2,189	2,119	2,061	2,137	2,187
(이연신계약비)	(1,192)	(1,225)	(1,277)	(1,242)	(1,268)
신계약비	1,849	1,832	1,826	1,810	1,819
유지비	1,532	1,512	1,513	1,570	1,636
신계약비상각비	1,556	1,441	1,303	1,197	1,143
할인료	1	1	2	3	2
투자손익	8,477	7,408	6,514	7,093	7,010
투자영업수익	9,745	8,952	9,589	10,042	13,463
투자영업비용	1,268	1,544	3,074	2,949	6,453
책임준비금전입액	6,378	5,925	6,853	6,399	571
영업이익	826	(513)	(197)	(9)	(311)
영업외손익	1,510	1,527	1,343	944	1,096
세전이익	2,336	1,014	1,147	935	785
법인세비용	538	180	218	84	168
당기순이익(별도)	1,798	834	929	852	617
당기순이익(연결)	1,734	1,052	1,371	1,598	1,721
비지배지분순이익	69	74	105	128	137
지배지분순이익	1,664	977	1,266	1,469	1,583

재무상태표	(단위:십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총계	262,230	287,358	309,803	310,367	281,498
운용자산	210,495	231,497	248,974	249,968	223,128
현금과예치금	2,832	4,858	2,884	3,591	5,528
유가증권	156,416	175,006	191,726	188,936	159,008
주식	27,084	35,504	47,827	46,702	34,827
채권	106,050	114,099	114,864	108,417	91,498
외화유가증권	14,858	16,456	18,163	21,163	18,241
대출채권	46,895	47,496	50,467	53,550	54,847
부동산	4,353	4,137	3,897	3,891	3,745
비운용자산	5,802	6,066	6,160	5,152	6,114
미상각신계약비	2,755	2,538	2,513	2,558	2,683
특별계정자산	45,934	49,795	54,669	55,248	52,256
부채총계	235,732	254,272	270,777	276,198	263,812
책임준비금	173,618	180,046	187,483	194,526	196,165
보험료적립금	166,046	171,446	178,807	185,602	187,197
계약자지분조정	8,177	11,504	15,148	13,000	5,435
기타부채	6,793	9,362	11,726	10,748	6,434
특별계정부채	47,144	53,360	56,421	57,924	55,778
자본총계	26,498	33,086	39,025	34,169	17,687
자본금	100	100	100	100	100
자본잉여금	6	6	6	6	6
신종자본증권	0	0	0	0	0
이익잉여금	13,161	13,519	13,972	14,375	14,453
자본조정	(2,110)	(2,110)	(2,110)	(2,110)	(2,1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342	21,571	27,058	21,799	5,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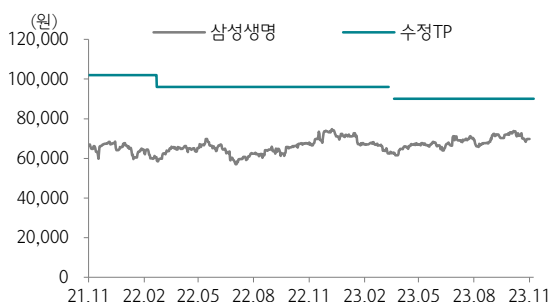
투자지표 (I)	2018	2019	2020	2021	2022
성장률(YoY, %)					
보험손익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투자손익	34	-13	-12	9	-1
영업이익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세전이익	107	-57	13	-18	-16
별도순이익	91	-54	11	-8	-28
연결순이익	37	-39	30	17	8
지배순이익	43	-41	30	16	8
자산총계	1	10	8	0	-9
부채총계	2	8	6	2	-4
자본총계	-1	25	18	-12	-48
주요사업지표(%)					
손해율	84.3	88.3	84.6	91.6	89.2
사업비율	13.7	13.2	11.7	12.2	11.7
지급여력비율	304	339	325	332	246

자료: 하나증권

투자지표 (II)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용자산 비중 (%)					
현금 및 예치금	1	2	1	1	2
유가증권	74	76	77	76	71
대출채권	22	21	20	21	25
부동산	2	2	2	2	2
투자지표 (% 배)					
ROA	0.64	0.36	0.42	0.47	0.54
ROE	6.24	3.28	3.51	4.02	6.11
P/E	11.79	12.69	13.69	9.15	10.74
P/B	0.49	0.37	0.37	0.29	0.57
배당 지표					
DPS	2,650	2,650	2,500	3,000	3,000
증가율(YoY, %)	33	0	(6)	20	0
배당성향 (%)	29	49	35	37	34
배당수익률 (%)	2.5	3.6	3.4	3.9	4.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생명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3.4.4	BUY	90,000		
22.6.3	BUY	96,000	-31.31%	-22.19%
22.5.31	담당자 변경		-	-
22.3.7	BUY	96,000	-32.72%	-27.29%
21.4.21	BUY	102,000	-28.85%	-15.29%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안영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3년 11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안영준)는 2023년 11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14%	5.41%	0.45%	100%

* 기준일: 2023년 11월 12일